■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31-356.
http://doi.org/10.17948/kcs.2022..96.331

장지연 유학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연속과 단절*

김미영(金美榮)**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장지연사상 연구경향 및 문제점
3. '경제학파'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통해 본 장지연의 유학사상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장지연의 전후기 사상을 친일이나 애국의 잣대가 아닌 격변의 시기 변화된 상황에 따른 사상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애국 친일의 관점에서 연구된 장지연 사상의 연구경향 및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애국계몽시기 그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사상을 발굴하며 국가설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이를 전승할 사람에 주목하며 유학의 공부론에 주목하였다. 이는 일제식민시기 기술한 『조선유교연원』에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을 이익의 글을 인용하며 공부론 측면에서 기대승이 이황의 호발설을 수용했다고 정리한 것이나, 이익의 홍범설을 통해 전대의 전통이

* 본고는 2020년 서울시립대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후대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철인에 의해서라고 하며 기자를 내세운 곳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조선유교연원』에서는 경세제민을 제창한 경제학파 유학자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도통을 이을 인격자에 주목하여 유학본연의 공부론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그가 이황과 이이 시기 전개된 논쟁과 이후 전개된 논쟁을 비판하며 후자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측면이라든지, 당대 불교계나 유교계의 분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도를 이어나갈 인간에 주목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격변의 시기 그가 일평생 끝까지 전통사상에 관한 집필을 한 배경에는 시대를 걱정하며 이를 이끌어가고자 한 유학자들의 자임의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장지연, 애국, 친일, 유학, 경제학, 공부론, 자임의식.

1. 들어가는 말

1905년 황성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던 장지연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是日也放聲大哭]」(이후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논설을 실었다. 이에 일제는 그를 체포하고 『황성신문』 역시 정간시켰다. 이를 기화로 그의 명성은 당시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70-80년대까지 이어져 우리들에게 장지연은 애국지사로 기억되었다. 그가 1921년 11월 1일 영면에 들자 11월 4일자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는 그를 추모하는 기사가 실렸다. 『장지연전서』 10권에는 『동아일보』 기사만 수록되어 있고, 『매일신보』 기사는 수록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그의 생애 중 「시일야방성대곡」 논설로 당시 이목을 끌었고 국내언론탄압에 격분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해조신문』을 세워 정예의 필봉을 휘둘렀다고 한 점, 귀국 후 10여년 간 『경남일보』 주필로서 문화향상에 노력한 점, 교육진흥에 헌신하며 휘문의숙 숙장으로서 영재를 교육하였다는 점을 그의 대표 업적으로 제시하였다.[1] 반면 『매일신보』에서는 "『황성신문』 주필로 있다가 근년에 본사 객원이 되어 숭양산인(崇陽山人)이란 이름으로 그 웅문과 탁설을 수십 년 동안 기고한 점" 등을 중점으로 소개하

1) 「張韋庵先生長逝」, 『동아일보』, 1921년 11월 4일.

였다.[2] 이처럼 『동아일보』 기사에는 장지연이 『매일신보』에 객례(客禮)의 신분으로 주필로 활동했던 이력이 소개되지 않았고, 『매일신보』 기사에는 「시일야방성대곡」 논설과 관련된 행적이 소개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그의 행적에서 기리고자 한 바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일제는 1913년 3월 7일자 『매일신보』에 「조선에 文明線을 선도한 신문계 원로 장지연군」이라는 제하로 그를 소개[3]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서도 그의 「시일야방성대곡」 논설과 관련된 일화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 이후 1914년 11월부터 장지연은 당시 『매일신보』 사장으로 부임한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끈질긴 권유를 수락하여 객례의 지위로 『매일신보』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사후 『동아일보』 뿐 만 아니라, 그를 추모하는 그의 친구 김택영과 족형 장지화는 그의 생애를 기술하며 『매일신보』에 객례의 신분으로 주필로 활동했던 이력은 생략하였고, 「시일야방성대곡」 논설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그만큼 당시 한국인들에게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은 깊은 울림을 주었으므로 일제가 이를 그의 생애기록에서 삭제하고 싶어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인한 그의 명성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1958년 신석호의 「장지연론」이 『사조』에 발표되었고, 1967년 천관우가 본격적인 학술논문인 「장지연과 그 사상」을 『백산학보』에 발표한 이래 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장지연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접한 후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로 유명한 항일운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로는 장지연의 친일행적과 관련된 논의들이 가시화되면서 2005년 12월 9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장지연의 항일과 친일언론'이라는 주제 하에 논문발표회가 개최되었고,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명단에 장지연이 포함됨으로써 장지연사상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친일행적의 주된 부분은 망명했다가 귀국한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한 글이었다.

---

2) 「張志淵氏長逝」, 『매일신보』, 1921년 11월 4일.
3) 「조선에 文明線을 선도한 신문계 원로 장지연군」, 『매일신보』, 1913년 3월 7일.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3권에는 1908년 2월 블라디보스톡의 『해조신문』에 주필로 초빙되었다가 5월 『해조신문』이 폐간되자 상하이 난징을 거쳐 9월 입국, 1909년 10월 『경남일보』 주필로 초빙된 후 『경남일보』에 실린 일본천황 메이지 생일인 천장절 축하지면이라든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매일신보』에 1914년 이래 정기적으로 기고한 글들 중 일본신정을 찬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의 친일행적을 소개하였다. 즉 해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한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매일신보』에 객례의 신분으로 주필로 활동했던 이력을 변절로 본 것이다. 또한 그가 해외망명을 떠나기 이전 몸담았던 애국계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박노자는 고문이었던 일본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란 존재에 주목하며 이 단체를 단지 애국이라는 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4] 이렇듯 2000년대 접어들며 애국계몽시기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시대흐름에 따라 한때는 애국지사로 한때는 친일파로 낙인찍으며 연구된 장지연 사상 연구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국이나 친일의 잣대로는 격변의 시기 그의 전통사상 연구를 관류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명사상고취를 주장하며 국가체재 정비에 주목한 대한제국시기 그는 『대한강역고』, 『동국역사』, 『만국사물기원사』 등 역사 지리서를 발간하였고,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경제학파들의 저술을 소개하며 국력이나 국권회복을 꿈꾸었다. 반면 일제강점기 접어들면서는 『매일신보』에 『일사유사』나 『조선유교연원』 등의 글을 연재하면서 전통시기 사상가들의 사상이나 재야의 유능한 인사들을 소개하였다. 그를 애국자로 추앙하던 1990년대 이전 그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전시기 언론활동을 통해 애국계몽의 선도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한 반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에 접어들면서는 일제강점기 객례의 신분으로 『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한 이력에 주목하며 그를 친일파로 낙인찍었다.

4) 박노자, 「박노자의 동아시아 근현대 탐험: 애국계몽운동은 '애국'이었나」, 『한겨레21』 522, 2004년 8월 12일.

이처럼 애국과 친일이란 잣대로 장지연사상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 장지연 사상을 변절이란 잣대로 단절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의 전후기 사상을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일생동안 발표한 전통사상 연구에 관철되어 있는 유학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혼란한 시기 유학자들의 시대를 이끌고자하는 자임의식이 그의 전후기 저술 기저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자임의식이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맹자』에 나온다.[5] 이는 유학자 즉 당대의 지식인들이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이를 구제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던저 세상을 구하겠다는 헌신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자임의식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송대 사대부들의 의식에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갔다. 북송시기 정치인이며 문장가였던 범중엄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즐거워 한 이후에 즐거워한다"[6] 라고 하는 말은 유학자들의 자임의식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장지연이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 민족유산을 정리 발표하도록 이끈 기저에는 이처럼 유학자들이 시대를 걱정하며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강한 자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장지연사상 연구경향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일제강점기 이전시기에 경제학파들을 발굴한 그의 관점, 및 『조선유교연원』에서 경제학파가 차지하는 위상이 축소되며 중점이 이동되는 과정에 관철되어 있는 관점에 투영되어 있는 그의 유학사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의 유학사상은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나가는 속에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맹자집주』 서문에 맹자를 성인의 반열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자의 답변에서 자임의식의 의미를 잘 읽을 수 있다. "정자는 또한 다음처럼 말한다. 배우는 사람은 때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 때를 알지 못한다면 배움을 말할 수 없다. 안자가 누추한 거리에서 스스로 도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맹자의 때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었다. 어찌 세상에 도를 펼치겠다고 자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孟子集註』 序. "程子又曰 學者全要識時. 若不識時, 不足以言學. 顔子陋巷自樂, 以有孔子在焉. 若孟子之時, 世旣無人, 安可不以道自任.")

6) 범중엄, 「岳陽樓記」,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2. 장지연사상 연구경향 및 문제점

장지연 사상을 연구한 1990년대 이전 논문들은 주로 장지연의 항일 민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그의 친일 행적을 엿볼 수 있는 1914년 이후 생애 후반기는 연구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약화시켰다. 반면, 1990년대부터는 생애 후반기 친일 행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물 중 1990년대 이전의 연구동향은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장지연이 "1993년 1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보다 학술적으로 평가할 목적에서 기획"된 『장지연 연구논총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이하 『논총』으로 지칭)에 실린 논문들에서 읽을 수 있다.[7]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논총』에 실린 논문들과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하면서 장지연 사상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다.[8]

1990년대 즈음까지 한국철학사상의 전개과정에서 장지연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할 때 제시되는 업적은 실학사상가로서 다산 정약용을 발굴하였다는 점과 서구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통해 자강사상을 기치로 내걸며 20세기 초 활동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 논의들은 주로 장지연이 실학과 자강사상을 토대로 전통사상이었던 조선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실학이란 당대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 및 제도 변혁의 기초로서 강조하는 사상을 말한다.

---

7) 천관우 외, 「편집후기」, 『장지연 연구논총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649면.

8) 장지연의 여성교육론을 엿볼 수 있는 『애국부인전』이나 『녀자독본』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단지 1983년 강영주의 「개화기 역사 전기문학(1) :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중심으로」와 1990년 이강옥의 「장지연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 『애국부인전』, 『녀자독본』, 『일사유사』」 두 편 정도 있을 뿐이다. 1993년에 편집된 『논총』에도 여성교육론과 관련된 부분은 할애되어 있지 않다. 『논총』에 실린 권영민의 「장지연의 문학사상」에서 신소설 장르로서 『애국부인전』을 잠깐 언급하였을 따름이다. 이처럼 새로운 장르로서 신소설인 『애국부인전』이 먼저 주목받아 연구되다가, 근대시기 여성교육론이나 열녀전을 연구하면서 『녀자독본』도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근대국어교과서모임에서 '개화기 국어교과서 총서' 13권에 문혜윤이 장지연의 『녀자독본』을 편역하여 수록 출판하였다. 장지연의 여성교육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1993년 기획된『논총』에서는 장지연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생애와 자강사상', '역사인식', '사회경제사상', '언론-문학활동'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장지연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던 생애후반기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논총』에도 일부 보인다. 유숭의「장지연의 생애와 자강사상」과 이훈옥의「장지연의 변혁사상의 형성배경과 전개」가 그것이다. 유숭의 경우는 "장지연의 후기 생애와 업적에 대한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합방이후 국권회복의 희망이 좌절된 상황에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우리의 역사 민속 등을 정리 편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보존 고취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가 생애후반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자강론의 사상적 기반인 사회진화론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인식 부족과 도시 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운동과 같은 운동방법상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침략노선인 아시아주의와도 연결되는 동양삼국 연대론과 같은 동양주의 등 다양한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져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

이렇듯 '사회진화론'과 '아시아주의'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장지연의 생애후반기 친일행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김도형이나 박선영의 논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단지 장지연의 생애후반기 업적을 민족정신의 보존, 고취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박선영의 경우는 "장지연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도, '변절'로 보이는 면모도, 모두 그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고 하며, 전 생애를 관통하는 사상으로 유교를 꼽고 있다.[10] 김도형의 경우는 장지연이 생애후반기 문명화를 위해 유교의 개선과 진흥을 강조하며 유학에 매달릴

9) 천관우 외, 위의 책, 183-184면(유숭,「장지연의 생애와 자강사상」,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수정보완 논문)

10) 박선영,「장지연의 '친일'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유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을 중심으로」,『일본연구』11, 고려대 일본학연구센터, 2009, 238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극적인 친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11]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장지연의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그의 친일행적과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다.

임종진 역시 친일행적과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결부시키고는 있으나, 수양론을 중심에 둔 유학자와 경세론을 중심에 둔 유학자를 구분하면서 장지연을 경세론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로 분류하며 그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그는 "수양론 중심의 유학기풍이 강하였던 안동지역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다수의 유림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반면, 경세론적 유학을 배경으로 한 다수의 개화파 자강파 지식인들이 친일면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보면 수양론에 근거하지 않은 경세론은 일종의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장지연 연구에서 조선성리학을 극복하는 근대적인 사상으로서의 실학사상을 강조한다던지, 자강사상이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관계에 중심을 두는 연구경향과는 달리, 장지연이 "유학연구의 객관화 전문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전통유학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인식론과 수양론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2]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장지연의 후반기 저술인 『조선유교연원』 등에 관철되어 있는 유학자로서의 당대 현실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노관범은 개신유학의 개념틀 속에서 장지연 사상을 논했던 흐름을 비판하면서 장지연 사상의 특징을 박학풍이라고 규정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박학풍의 형성배경으로 장지연이 청년기 영향을 받았던 다양한 사상조류 즉 영남강안지방의 다채롭고 복합적인 학문풍토, 장지연이 사사한 허훈의 실용적인 학풍, 문과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체류하며 얻은 경화세계의 체험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신유학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장지연 사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지연의 근

11)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111면.
12) 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퇴계학파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91, 대한철학회, 2004, 292면.

대사상의 방향성이 단일한 전통의 단선적인 자기개신에서 나왔다기보다 다양한 전통의 복합적인 상호합류에서 나왔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13] 이는 근대사상을 논의할 때 전통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19세기 말 20세기 초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학자들의 생애 속에 전통과 근대는 반드시 단절적 대립적으로 그려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지연은 과거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학문세계에서 성장하였다. 또한 애국계몽시기 문명화를 제창하며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에 중추로 활동하며 신지식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 속에는 전통과 근대가 단절되지 않은 채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변혁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보』에 실린 그의 글에 나타난 박학다식함은 청년기시절 익힌 한학을 바탕으로 하여 1908년 해외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지연의 생애후반기 저술활동의 계기를 언급하며 청년기시절 접한 사상이라든지, 전통사상과의 연속성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망명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인사나 서적들 그리고 경험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망명생활 일기인 『해항일기』는 1908년 1월 1일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부터 동년 8월 24일 귀국을 앞둔 때까지 블라디보스톡, 상해, 통주, 남경을 오가며 겪었던 생생한 기록이다. 1908년 4월 9일 일기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당시 동양대학교 교장이었던 보도스타빙(甫書堂)을 만나 담화를 나누며 한일교섭사발간과 관련된 일을 의뢰[14]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당대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간된 신문이나 잡지, 서적들을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다. 특히 그는 상해에 체류할 때 당시 중국출판계에 영향력이 있었던 광지서국廣智書局, 상무서국商務書局, 문명서국文明書局 등을 두루 다니며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며, 신주일보사神州日報社 주

13) 노관범, 「청년기 張志淵의 학문배경과 博學風」,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46-47면.
14) 장지연, 김영호 역, 「해항일기」, 『신동아』 4월호, 1972, 200면.

필을 만나 중국출판계의 현황을 듣기도 하였다.[15]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심하며, 8월 13일 그는 "다만 한이 되는 것은 나이 겨우 40 남짓인데 뜻을 품은 채 이루지 못하고 멀리 해외에 와서 뜻밖의 횡액을 당하니 목숨은 이슬이요 몸은 나뭇잎이라. 만약 남의 음해를 입어 죽는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랴."[16]라고 한다. 이처럼 그의 해외생활은 음해를 받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점철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변의 시기 동아시아에 물밀 듯이 유입된 새로운 사조들을 접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김영호는 1970년대에 장지연의 증손집에서 발견된 『해항일기』를 1972년 4월호 『신동아』에 번역하여 실으며, 장지연의 생애를 소개하였다. 그는 망명 후 귀국한 경위에 대하여 "『해조신문』에 실린 그의 논설에 앙심을 품은 일제가 사주한 괴한으로부터 양자강 배안에서 습격을 받고 다시 남경에서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하며 결국 "상처난 몸으로 실의의 귀국을 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17] 이는 장지연 사후 묘표나 김택영의 「사략」을 참고하여 그를 위해한 배후에 일제가 있었다고 한 듯 하다. 이는 일제에 항거한 투사로서의 면모를 강조하였던 흐름과 연장선상에서 귀국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해항일기』에는 곳곳에서 장지연이 당시 중국에서 겪었던 습격사건의 배후에 그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조신문사에 같이 근무하였던 왕창동이 있다는 점을 누차 언급하고 있다.

남경에서 그를 모함한 무리들의 청원으로 청국 경찰청의 단두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청국 당국으로부터 들은 죄명은 『해조신문』에 실었던 그의 논설이었다. 장지연은 이에 대하여 "내가 해조신문기자로 있으면서 의병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사를 쓴 것"이라며,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이를 빌미로 자신에 대한 루머를 퍼트리고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18] 이 때 장지연은 죽음을 눈앞

15) 장지연, 김영호 역, 앞의 글, 209-210면.
16) 장지연, 김영호 역, 앞의 글, 218면.
17) 김영호, 「위암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 『신동아』 4월호, 1972, 195면.
18) 장지연, 김영호 역, 앞의 글, 213면.

에 두고 필담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며, "애국하는 뜻을 펴지 못한 채 시기하는 자에게 죽게 되니 내가 죽는 때에 모름지기 한국지사 장지연이 나라를 위하다 혐의하는 자에게 죽다라고 크게 쓴 뒤에 죽겠다"고 하였다. 수차례 필담이 오간 후 그의 뜻에 감복하여 형은 집행되지 않고 그는 풀려나게 되었다.[19]

망명시기 독립운동 분파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했던 장지연은 이와 같은 분파주의에 대한 비판을 귀국 후『매일신보』논설에서는 조선유학자들의 당쟁을 비판하는 것으로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파주의에 대한 비판을 김도형의 경우는 친일적인 행보와 연관시키고 있으나, 이는 당시 망명지에서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분파주의 비판을 친일적인 행보라 한 것은 다카하시 도루가 1917년 일본의『일본사회학원년』에「조선인」으로 발표한 글에서 사대성 분파성 등을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지적[20]한 것으로부터 식민통치기간 내내 일제가 이를 확산시키자,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식민사관이라며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매일신보』에 실린 장지연의 당시 유학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단지 그의 친일행적과 연관시킨다면 후반기 전통사상 및 민족문화 전승에 기울였던 그의 노력과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그의 전후기 사상을 친일이나 애국의 잣대가 아닌 격변의 시기 그의 행적에 나타난 유학자로서의 자임의식에 주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가 해외로 망명하기 이전 애국지사로 칭송되던 시기 그의 사상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자강론을 외치며 정약용을 경제학파로 간주하며 그의 저술발간을 지원했던 일들에 반영된 애국사상전파 노력과 친일행적을 제시할 때 주된 논거로 삼은 1908년 귀국 이후 1914년 객례로서『매일신보』에 연재한 논설들은 그의 유학자로서의 자임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실천적 면모라 할 수 있다.

---

19) 장지연, 김영호 역, 앞의 글, 214-215면.
20) 이는 1917년 대구고등보통학교교장으로 있던 다카하시 도루가 일본의『일본사회학원년』에「조선인」으로 발표한 글이다.

3. ‘경제학파’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통해 본 장지연의 유학사상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20세기 들어 진행된 한국유교사 연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본격적인 한국유교사상사 연구의 선두주자였던 다카하시 도루나 현상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이들의 한국유학사관과 비교하고 있다. 이동희는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대관』과 비교하면서 장지연의 저술은 “세련된 사상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며, “주자학적 도통론을 벗어날 수 없었고, 학안류의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1] 노관범은 이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와 비교하면서 “모두 한국유학사가 연원록에서 벗어나 사상사를 성취해 나가는 도정에서 출현한 대표작이었다”고 하며,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도학 전통의 계승을 넘어 당쟁, 학풍, 지역, 사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학자를 편성한 것은 한국 유학사를 유교 쇠망사라는 거대서사로 끌고 가기 위한 실천적인 착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저술은 “인물편제방식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기본단위는 여전히 인물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이점에서 전통적인 연원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22] 이처럼 이들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학안류나 연원록의 전통적인 기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이를 전통적인 학문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장지연의 한국유교사 연구에 대한 평가는 그의 저술인 『조선유교연원』을 다카하시 도루나 현상윤의 한국유학사 연구와 비교하면서 이루어졌다. 비교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논자들은 그의 저술은 새로운 학문방법론이 대두되면서 전개된 사상사로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하나 다카하시 도루나 현상윤의 사상사로서의 한국유학사 정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21) 이동희,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특징에 대하여:다카하시의 「조선유학대관」과의 비교」, 『한국학논집』 3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192-193면.
22)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225-227면.

의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논자는 많은 학자들이 장지연의 한계로 지적하는 도통론에 입각한 사상사 기술이 갖는 의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논자는 장지연의 한국유학사 기술을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유학사기술과 비교하며 "다카하시 도루는 시기에 따라 한국유학사를 기술하는 주된 관점에 변화를 보이기는 했으나, 조선유학을 연구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영역에 주목하여 이기론의 형이상학적 이론체계 구명이 중심"이었지만, 장지연은 조선유학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을 공부의 의미에서 접근하여 주자학 이래의 도통론 및 군자/소인의 구분을 통해 학자들의 사상을 평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23] "조선유교연원』에서 기술된 전통시기 사상가들의 사상을 평가하는 관점은 단지 전통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전통사상가들을 다루는 논의 속에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초창기 애국사상 전파시기 문명화를 향한 자강론을 제창하며 강조한 경제학파에 대한 관심이 후반기 한국유학사 기술과정에서 나타난 변화과정에 관철되어 있는 그의 유학사상에 촛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장지연의 족형인 장지화는 「소전(小傳)」에서 장지연이 방산 허훈에게서 고문사를 배웠다는 점을 밝힌다.[24] 의병장이었던 방산 허훈은 성재 허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성재 허전은 이익, 안정복, 황덕길을 이은 기호의 남인학자로 현실에 바탕한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였다.[25] 이는 후대 실학파로 불리는 학파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의 사상을 평가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지연은 그의 『조선유교연원』에서 허전에 대해 "철종 임술년에 올린 삼정(三政)에 대한 대책이 우수하였다"[26]고 할 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삼정이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으로 18, 19세기 조선에서 재정의 주종을 이루던 세 가지 수취의 경영"[27]을 말한다.

---

23) 김미영, 「타카하시 토오루와 장지연의 한국유학사관」, 『대동철학』 55, 대동철학회, 2011, 84면.
24) 장지화, 「小傳」, 『장지연전서』 10, 단국대부설동양학연구소, 1202면.
25) 「허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 장지연, 이민수 역, 『조선유교연원』, 610면.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삼정」 항목 참조.

또한 그의 친구였던 김택영은 "장지연 학문의 주축은 다산 정약용과 성호 이익이었다"[28]고 한다. 신용하는 "다산 정약용이 최초로 세상에 널리 발굴된 것은 1899년 4월 17일자, 18일자 『황성신문』 논설인 「我國의 經濟學大先生 丁茶山若鏞氏의 所述한 바를 摘要하노라」라는 글"이었으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글이 장지연의 글임을 입증하고 있다.[29] 특히 그는 정약용을 경제학으로 명명한 예는 당시 장지연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이를 장지연의 글로 판단한다. 즉 『조선유교연원』에서 장지연이 후대 조선후기 실학자로 불리는 학자들을 경제학 또는 경제정치학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후대 장지연 사상의 연원을 실학파와 연계하며 진행한 평가틀은 장지연 사후 그의 생애를 기록한 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의 애국계몽기 활동이력에 바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서는 "유형원, 정약용,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등 제공은 특히 유교에 경제와 고증의 학을 겸했으니 실로 한나라 때 유가의 학술이다."[30]고 평가할 뿐, 이들을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유교연원』에서는 성호 이익의 사상을 더 이상 경제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의 성리설에 주목하였다. 마지막 연재를 마치며 정리한 「총론」 상중하편에도 경제학파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선유교연원』을 연재하기 2년 전인 1915년 2월에 연재된 「조선유교의 원류」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현상윤은 조선유교사상사에서 장지연의 경제학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후대 실학자들을 분류하였다. 이는 1930년대 조선학이 유행하며 경제학파들이 재조명받게 되었고 오늘날 이들을 성리학과 대비시켜 실학파로 부르게 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애국계몽기 장지연이 조선유학에서 경제학에 주목한 이유는 당시 국력이나 국권회복이라는 당면 목표를 전통시기 학자들의 경제학 담론을 통해 포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학'이나 '경제정치학'이란 용어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

28) 김택영, 「事略」, 앞의 책, 1201면.
29) 신용하, 「19세기말 장지연의 다산 정약용의 발굴」, 『한국학보』 29-1, 일지사, 2003, 3면.
30) 장지연, 이민수 역, 앞의 책, 439면.

로 사용한 개념이다.[31] 번역어인 경제란 동양고전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나온 용어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곤궁에서 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아마도 장지연은 경제학 내지는 경제정치학이란 번역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담긴 의미로는 경세제민의 학문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광문사 신간『목민심서』간행에 즈음해서 발표한 그의『황성신문』논설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한국인의 폐단은 완고한 사람은 예악문물을 오로지 은주고법을 모방해야 삼대의 이상정치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하고,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교술을 오로지 구미신법에 준거해야 부강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허탄한 담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고 하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한국은 한국인의 문물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법도를 행하여 오로지 원융통활해야 구태에 떨어지지 않고 실행해야할 따름이다."고 하며, "국조는 중고이래로 정치가라고 할 사람은 잠곡 김육씨, 반계 유형원씨, 성호 이익씨, 다산 정약용씨, 연암 박지원씨 네 다섯 선배들이 있어 경제정치학으로 모두 유명하게 칭해진다. 그 중 가장 저술이 많은 사람은 오직 다산공이 최고니 공은 보기 드문 뛰어난 모습으로 널리 펼쳐 대중을 구제하려는 뜻을 품고 실업을 연구하여 학술에 정통하니 경장의 일에 뜻을 두었으나 불행히 험난한 때를 만나 재주를 펼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를 "우리 한국정치학 중의 제일의 신서이니 의당 집안에 한부를 두어 사람들은 이 책을 열람하라."고 권하였다.[32]

이처럼 애국계몽기에 그가 경제학자들 특히 정약용에 주목한 이유는 국가체제로 체제개편을 이루고자 한 대한제국기에 한국풍속에 맞는 정치제도를 찾아 나라를 다스릴 방도를 강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치하『매일신보』에 논설을 쓰던 시기에는 '국권'을 논할 대상인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민족문화 전승의 주체인 사람에 그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당대 지식인들의 행태

31) 후쿠자와 유키치, 송경호 외 역,『서양사정』, 여문책, 2021, 275면.
32)「廣文社新刊牧民心書」,『황성신문』, 1902년 5월 19일.

들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한 배경에는 당시 지식인들의 병폐를 일소하고 문화적 뿌리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15년 1월 5일자 논설에서 조선의 종교에 대해 논하며 조선 역사에서 유교와 불교의 성쇠를 언급한 후 "종교의 자유신앙은 진실로 잘 된 일이나 일정한 국교가 없이 각자 분열되어 서로 배치되면 아마도 민족상의 통일된 관념이 없을 것이니 어찌 외국의 풍조를 숭배함이 없는가? 이는 실로 종교계를 위하여 사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노라"고 하였다.[33] 그는 그 이후 1915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조선불교의 원류」를 연재하였고, 2월3일부터 2월9일까지는 「조선유교의 원류」를 연재하였다. 이를 통해 장지연은 당시 불교계와 유교계의 부진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교의 경우는 당파분열이후 도덕이 쇠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대 지식인들의 행태를 다음처럼 비판하였다.

> 최근 거짓 유자의 무리들은 실지를 딛고 있을 줄 모르고 허공을 다니는 말을 좋아하여 종일토록 좌담하는 것이 공중누각일 따름이다.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며 세도를 비평하는 것이 지엽적인 부분인 것이 풍습이다. 억지로 과장된 설을 만들어 고상한 이름을 퍼트리려 하니 이 또한 유생이 행하는 바인가![34]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당시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대 지식인들의 폐해의 근원을 조선시대 유학 특성으로 보는 다카하시 도루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1915년 5월 15일 『매일신보』에 실린 다카하시 도루의 「경학사상의 운양집-저자의 유학에서의 계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강연요지를 읽고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관을 비판하며 조선유학사를 관류하는 유학정신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카하시 도루가 서화담, 이회재, 이퇴계로 이어지는 성리학을 공리공담의 유학이라 본 견해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에도 치평의 방법론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성리학을 공리공담

33) 『매일신보』, 1915년 1월 5일.
34) 「조선유교의 원류」, 『매일신보』, 1915년 2월 9일.

의 유학으로 본 그의 유학사관을 비판하였다.[35] 그리고 이후 발표한 『조선유교연원』에서는 후대의 당쟁과 이황과 기대승, 이이와 성혼의 논쟁은 군자 간의 논쟁이라고 하며 조선성리학을 공리공담으로 비판하는 견해와 거리를 두었다. 장지연 역시 당쟁의 폐해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는 후대 말단의 폐해라고 하며 당대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는 다카하시 도루가 조선성리학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한국인의 민족성과 결부시키고자 한 시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유교연원』에서는 정약용보다는 이익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는 이익을 경제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채제공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학통을 "퇴계는 우리 동방의 부자이신데 도를 한강 정구에게 전했고, 한강은 이를 미수 허목에게 전했고, 미수로부터 이공에게 이어졌다"[36]는 점을 언급하였다. 「총론」에서는 "조선에 유교가 일어난 것은 실로 포은 정몽주 선생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천명하여 우리나라 유교의 종주가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송유 정자와 주자의 학파이고, 저 요순우탕이 전수한 학문은 기자(箕聖)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명이의 교화가 비록 원시 상태를 개벽하지는 못했으나 문명의 가르침을 편 것은 그 유래가 참으로 유구한 것이다."[37]고 하였다.

그는 『조선유교연원』에서 이익을 소개하며 그의 「홍범설」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의 「홍범설」에는 "은나라의 도가 쇠퇴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졌으나 오직 철인군자들만이 이를 지켜 잃지 않았으니 실로 기자가 한번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이 도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다"고 하였다.[38] 장지연이 망국의 일제 식민시기 분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불교와 유교 종교계의 분파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한 것은 그가 친일로 전향한 것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문명의 가르침을 전할 철인군자의 필요성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조선유교연원』을 논하며 기자에 주목한 것도 국가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명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철인군자에 있었다

35) 장지연, 「辨高橋亨講演」, 『韋庵文稿』 5, 『장지연전서』 10, 547-558면.
36) 장지연, 이민수 역, 앞의 책, 390면.
37) 장지연, 이민수 역, 같은 책, 629면.
38) 장지연, 이민수 역, 같은 책, 394면.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노관범은 경세사학이란 관점에서 장지연 사상을 정리하면서 "장지연의 경세사학은 식민주의/민족주의의 이원성을 전제로 하여 역사에서 민족의 발견에 주목해 온 한국근대사학사의 연구관점을 확장해준다"고 하며, 그의 경세사학은 전통적인 의리사학이나 고증사학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성립을 배경으로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세적인 목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사학이었다"고 한다.[39] 그러면서 그는 대한제국 수립을 배경으로 한 1900년 전후시기를 문물전장과 지리강역의 사학에 집중하였고, 식민화된 1910년대 이후시기를 종교학술과 문화풍속의 사학에 집중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그는 대한제국 시기뿐만 아니라 식민시기 그의 저술도 경세사학의 범주로 파악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장지연이 일제강점기 종교학술과 문화풍속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세상을 이끌어 갈 사람에 주목하며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유학자로서의 자임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지연이 경제학 내지는 경제정치학으로 분류한 학파는 오늘날 실학파로 불리는 유형원, 정약용 이하 학자들의 학문이었다. 그가 일제 식민시기 종교학술과 문화풍속의 사학을 탐구한 것은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40]라고 하는 유학의 인문정신의 일환으로 행한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학의 도통론은 도를 전할 '인간'에 중점을 둔 사고에서 연원하였다. 따라서 민족문화를 후대에 전승할 인물에 초점을 둔 도통론적 관점에서 기술된 그의 『조선유교연원』을 평가할 때 단지 전통사상으로의 회귀 내지는 근대적인 사상사기술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기에 앞서 저술에 관철되어 있는 그의 당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주목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호 이익의 한국유학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장지연은 당시 조선시대를 비판하면서 조선학계가 주자학 일변도였다느니, 주자학은 당쟁을 일삼은 공리공담이라며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유학사관을 비

39) 노관범, 「장지연의 경세사학」,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63-164면.
40) 『논어』「위령공」,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판하며 퇴계학파 내 공부론 전통을 강조하였다. 사단칠정논쟁의 결말을 소개하는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황과 기대승간에 이루어진 사단칠정논쟁의 결말에 대하여 20세기 한국유학사 연구자들은 상반된 평가를 한다. 이 상반된 평가는 사단칠정 논쟁을 마무리하며 기대승이 보낸 「사단칠정후설」과 「사단칠정총론」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이황의 답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단칠정후설」과 「사단칠정총론」에서 기대승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 견해를 수정하였고, 이황 역시 이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견해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대승이 "사단은 오로지 리에서 발현하여 불선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칠정은 리기를 겸하여 선악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며 호발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칠정 중 리의 측면에 사단이 점하고 있다"[41]고 하며 사단과 칠정의 질적인 경계를 부정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황은 기대승의 견해를 칭찬하기는 하나, 여전히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성인의 희노애락과 (칠정 중에) 각각 소종래가 있다고 한 주장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서도 양자 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 따라서 다카하시 도루 이래 후대학자들은 양자 간의 토론 결말의 내용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의 학자도 옛날부터 공평한 입장을 가지고 두 사람의 리기설을 비판한다면 대부분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점에서 기대승과 이이의 학설이 이황의 학설을 이긴다고 한다"[43]고 하며 주리설 주기설의 논리적인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사단칠정논쟁을 결론짓는다. 1990년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유학사관을 비판하며, 다카하시 도루가 한국유학자들을 주리파 주기파로 분류한 것에 문제제기하였다.[44] 그러나 이들

41) 「四端七情後說」, 『高峯全書』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하편. "四端則專指其發於理而無不善者言之, 七情則固指其兼理氣有善惡者言之焉. 若以四端屬之理, 七情屬之氣, 則是七情理一邊, 反爲四端所占, 而有善惡云者, 似但出於氣. 此於言語之間, 不能無可疑者也."

42) 「退溪答高峯書」, 앞의 책, "聖賢之喜怒哀樂, 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有未安, 敢不三復致思於其間乎."

43) 다카하시 도루, 조남호 역, 「조선유학사에서 주리파 주기파의 발달」,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58면.

44) 이에 대한 연구성과 정리는 김기주,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유학관의 의의와 특징—「李朝儒學史

역시 다카하시 도루와 마찬가지로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서 사단칠정논쟁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들은 다카하시 도루가 내린 사단칠정논쟁의 성격규정, 더 나아가 한국유학사관과 다른 층차의 논의들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장지연은 "기대승이 이황의 호발설을 확충하는 공부와 성찰하는 공부라는 층차에서 인정하며 스승의 설을 따랐다"[45]고 하며, 논리적인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리기개념을 평가하기 보다는 공부과정에 초점을 두어 군자학으로서의 유학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이는 성호 이익의 사상을 소개하면서도 성호학파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성인의 기쁨과 슬픔 같은 칠정을 사단과 마찬가지로 리발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46] 그가 제시한 부분은 호발설의 리발기수(理發氣隨)에서 기수(氣隨)의 기와 기발리승(氣發理乘)에서 기발(氣發)의 기가 층차가 다르다고 한 부분이다. 즉 그는 형기로 대변되는 기발의 기 즉 대기(大氣)와 심으로 대변되는 기수의 기 즉 소기(小氣) 간의 구분을 통해서 사단칠정이 모두 심의 층차에서는 리발기수이나, 형기가 개입하게 됨에 따라 사단과 질적으로 다른 칠정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47] 20세기 초 철학이론으로서 형이상학적 논의구조틀 속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을 다룬 다카하시 도루와 달리 군자

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發達」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43, 동양철학연구회, 2005 참조.

45) 장지연, 이민수 역, 앞의 책, 169-170면.

46) 성호학파에 대한 논의는 안영상, 「성호 이익의 성리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47)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서 인용된 성호 이익의 서한은 퇴계학파 내의 이론분화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는 사단칠정논쟁을 다루며 성호 이익의 사칠설을 소개한다. 『조선유교연원』에서 사칠논을 다루며 성호 이익을 인용한 부분은 1745년 「답권대중서」와 1739년 「답이여겸」, 1740년 「답이여겸」2편, 연대미상의 「답조정숙」, 1747년 「답이치화」이다. 그런데 윤동규가 「중발설」에 문제제기하여 이익이 중발설을 폐기하였다고 한 해는 1742년이다. 장지연이 인용한 글 중에서 1742년 이후의 글은 「답권대중」과 「답이치화」 두 편이다. 그 중 「답이치화」 중 인용된 문구는 사상관련문구는 아니므로 「답권대중」에서 인용된 부분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편지는 1745년 권대중에게 보낸 편지로 이익이 30년 전에 저술한 「사칠신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내용이 율곡의 설과 판이하게 달라 발표를 미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이 견해를 수정하여 성인의 칠정은 리발이라고 하는 기대승의 견해를 수용하였지만, 문인들 중에 이렇게 되면 사단과 칠정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다시금 성찰하여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견해로 되돌아갔다는 점을 밝혔다. 장지연이 인용한 부분은 결국 성인의 칠정은 리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실린 글이다.

의 학으로서 공부론에 입각하여 조선시대 성리학을 연구한 장지연의 관점은 당시 조선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까지 한 조선성리학 연구에 새로운 빛을 던져줌으로써 군자의 나라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장지연은 일제강점기 해외 망명생활에 실패하고 귀국한 후, 친일행적이 문제가 되어 독립유공자 서훈이 2011년에 취소되기는 했으나, 이 시기 행한 그의 한국전통사상 연구는 당시 조선멸망의 원인을 당쟁으로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통문화나 사상을 비판하였던 당시 학계에 전통사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장지연의 한국유학사관에 투영된 도통론적 시각은 전통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망국의 시기인 일제식민시기 접어들며 경제론 보다 민족의 뿌리를 지탱할 공부론에 주목하며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한국유학사관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견해만으로는 당시 조선시대의 병폐로 지목되었던 당쟁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망국의 시기 그가 끝까지 민족전통문화를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강렬한 자임의식의 밑바탕에 놓여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4. 마무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가 2011년 서훈이 취소되는 등으로 보아도 20세기 장지연에 대한 평가는 격심한 굴곡을 겪었다. 이는 오늘날 대한제국시기와 일제식민시기를 평가하는 데 따른 논란과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20세기 내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연구는 애국과 친일 이라는 잣대로 칭송과 배제를 해왔다. 장지연 사상에 대한 평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애국과 친일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이 시기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애국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평가틀은 이 시기 활동했던 인사들이 견지하고 있던 당대 내지는 조선시대에 대한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 단적인 예로 장지연이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시대 당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당대 지식인에 대하여 '조선인은 단체성이 없다'고 한 비판을 친일의 예로만 제시한 것이다.

장지연의 친일행적은 망명했다가 귀국 후 일제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매일신보』에 객례로서 참여하며 쓴 논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논설문 중 일본의 신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들 내지는 조선인을 비판하는 글들이 친일행적으로 제시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조선인은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라고 하며 민족성과 결부시켜 망국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설은 당시 불교계나 유교계가 이합집산하며 서로 권력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쓴 글로서 민족성으로 조선망국의 원인을 논하기 위해 쓴 글이라기보다는 당대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한 예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친일행적의 예로 제시하며 그를 친일파로 낙인찍는다면 그가 한평생 전통사상을 연구해나간 동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가 당시 불교계나 유교계 인사들의 모습에 격분한 데는 아마도 망명시기 그가 『해조신문』에 실은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비판적 논설로 인하여 모함을 받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던 아픔이 투사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2장에서 그의 망명기 일기인 『해항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망명이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된 그가 대한제국시기 자강론자로서 전통시기 유형원, 정약용 등의 학문을 소개 발굴한 작업이나, 여권신장을 제창하는 데 부응하여 신소설인 『애국부인전』과 여성교육 교과서인 『녀자독본』을 발간하는 데 힘을 쏟는 등 애국계몽시기 그의 활동은 20세기 격변의 시기 유학의 경세사상을 국가주의 사상으로 재해석하여 국민의 계몽을 도모하고자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식민통치로 국가주의 사상의 제창이 좌절된 이후 그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유학자들의 자임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는 애국계몽기에는 유학에서 제시하는 덕을 발현하는 장을 가문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 반면, 일제식민 시기에는 민족문화의 맥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대 불교계나 유학계 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다툼에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그 연원을 조선후기 왜곡된 당쟁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결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식민시기 기술한『조선유교연원』에서는 경세제민을 제창한 경제학파 유학자들에 주목하기 보다는 도통을 이을 인격자에 주목하여 유학본연의 공부론에 주목하며 유학사를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단칠정 논쟁을 리기 개념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기 보다는 심성문제로 접근하여 심성배양 공부 과정의 상이한 층차를 논하는 데 주목하였다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의 한국유학사 저술을 도통론이나 그 기반인 공부론에 주목하여 저술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조선유교연원』을 전통적인 방식에 입각한 한국사상사 기술로만 평가한다면 그의 후반기 민족문화사상의 정리과정에 관철되어 있는 동기를 드러내는 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격변의 시기 그가 일평생 끝까지 전통사상에 관한 집필을 한 배경에는 시대를 걱정하며 이를 이끌어가고자 한 유학자들의 자임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高峯全書』
『論語』
『孟子集注』
范仲淹, 「岳陽樓記」, 『范文正公集』 권7
장지연, 『장지연전서』, 단국대부설동양학연구소 영인본.
장지연, 김영호 역, 「해항일기」, 『신동아』 4월호, 1972.
장지연, 이민수 역, 『조선유교연원』, 명문당, 2009.
「조선유교의 원류」, 『매일신보』, 1915년 2월 9일.
「廣文社新刊牧民心書」, 『황성신문』, 1902년 5월 19일.
「張韋庵先生長逝」, 『동아일보』, 1921년 11월 4일.
「張志淵氏長逝」, 『매일신보』, 1921년 11월 4일.
「조선에 文明線을 선도한 신문계 원로 장지연군」, 『매일신보』, 1913년 3월 7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기주,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유학관의 의의와 특징—「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發達」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43, 동양철학연구회, 2005.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김미영, 「타카하시 토오루와 장지연의 한국유학사관」, 『대동철학』 55, 대동철학회, 2011.
김영호, 「위암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 『신동아』 4월호, 1972.
노관범, 「장지연의 경세사학」,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_____, 「청년기 張志淵의 학문배경과 博學風」,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_____, 「연원록에서 사상사로—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3, 2009.
다카하시 도루,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박노자, 「박노자의 동아시아 근현대 탐험:애국계몽운동은 '애국'이었나」, 『한겨레21』 522, 2004년 8월 12일.
박선영, 「장지연의 '친일'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유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11, 고려대 일본학연구센터, 2009.
신용하, 「19세기말 장지연의 다산 정약용의 발굴」, 『한국학보』 29-1, 일지사, 2003.
안영상, 「성호 이익의 성리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이동희,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특징에 대하여:다카하시의 「조선유학대관」과의 비교」, 『한국학논집』 3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퇴계학파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91, 대한철학회, 2004.
천관우 외, 『장지연 연구논총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후쿠자와 유키치 저, 송경호 외 역, 『서양사정』, 여문책, 2021.

【Abstract】

The Continuity and Severance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Modernity in Jang Jiyeon's Confucian thoughts

Kim, Miyeong*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change of Jang Ji-yeon's confucian thoughts according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upheaval period, not to the standard of pro-Japanese or patriotism. To this end, I first dealt with the research trends of his thoughts and their problems, which wer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Japanese or patriotism. During the period of Patriotic Enlightenment, he sought to establish a nation by discovering traditional idea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e focused on pass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nation on to the next generation, paying attention to the person who would pass it on and the efforts theory of Confucianism. This is a summary of Yi Hwang and Ki Dae-seung's four-seven debate in 『The Origin of Joseon Confucianism』, which was writt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iting Yi Yiik's writings and summarizing that Ki Dae-seung accepted Lee Hwang's theory of two-sided release from the viewpoint of the efforts. It is also summarized that the tradition can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by the philosopher. Therefore, 『The Origin of Joseon Confucianism』 emphasized the original study of Confucianism by focusing on the personality who would succeed to it, rather than the Confucian economic scholar. It can be said that, considering the debates which was developed during the period of Yi Hwang and Yi Yi and the following ones by criticizing the latter, and his strong criticism of the sectarianism of the contemporary Buddhism and Confucianism, he focused on the human being who would continue the path. In the context of this upheaval period in which he wrote about traditional thought to the end of his life, it can be seen that the self-appointing Confucian consciousness which was concerned

*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Univ. of Seoul.

about the times tried to lead them.

Keywords: Jang ji-yeon, patriotism, pro-Japanese, confucian thoughts, political economics, the efforts theory, the self-appointing Confucian consciousness.

접수일: 2022.06.27.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2.